

2010 년 가을 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

메시지 11

복음서에서
(11)
그 영으로 실재화 되신 아버지의 표현
그리고
참 포도나무—삼일 하나님의 유기체

성경: 요 14:7-26, 15:1-16, 26-27

**I. 우리는 그 영으로 실재화 되신 아버지의 표현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—
요 14:7-26.**

- A. 아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체현과 표현이시고(7-11 절), 그 영께서는 아들의 실재와 실재화이시다 (17-20 절).
 - 1.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서 표현되시고 보이시며, 그 영으로서 아들께서 계시되시고 실재화 되신다—사 9:6, 고후 3:17.
 - 2. 아들 안의 아버지께서는 믿는 이들 가운데서 표현되시고, 그 영이신 아들께서는 믿는 이들 안에서 실재화 되신다—요 14:9, 16-18.
 - 3. 삼일 하나님—아들 안의 아버지와 그 영이신 아들—께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어 우리의 몫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하신다.
- B. 그 영으로 실재화 되신 그리스도는 다른 보혜사, 실재의 영이시다—16-17 절.
 - 1. 다른 보혜사, 즉 예수님의 실재와 주님의 실재화이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, 우리에게 공급하시고,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시는 분이시다.
 - 2. 실재의 영은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의 실재화이시다.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모두의 신성한 모든 속성들의 실재가 그 영이시다—요일 5:6.
- C. 그 영으로 실재화 되신 아버지의 표현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신다—요 14:21-23.
 - 1. 15:4-5 의 근거는 14:23 인데, 거기에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믿는 이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께서 그 영으로서 나타나심으로 만들어진 상호 거처를 갖는다. 이 거처는 삼일 하나님의 방문하심으로 예비된다.
 - 2. 아버지와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를 차지하시고 소유하신다.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 속에 자리잡으시어 우리와 함께 거할 곳을 만드신다.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시는 것이다—2-3, 23 절.
 - 3.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그 영으로 실재화 되신 아버지의 표현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데, 이는 아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정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—롬 10:13.

II.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—요 15:1-16, 26.

- A. 참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—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 안의 믿는 이들—은 신성한 경륜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로서 그분의 풍성으로 자라고 그분의 생명을 표현한다—딤후 1:4, 엡 3:9, 요 15:1, 5 상.
- B.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근원이자 창시자이시다. 아들 하나님은 중심과 체현과 나타남이시다. 영 하나님은 실재와 실재화이시다. 가지들은 몸, 즉 단체적인 표현이다—1, 4-5, 26 절.
 - 1. 아버지의 온 존재와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이 아들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고, 실재이신 그 영 안에 실재화 된다—16:13-15.
 - 2. 그 영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이 가지들인 우리를 통해 표현되고 증언되도록 우리 안으로 넣어진다. 이렇게 해서,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표현되시고 나타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다—엡 3:16-21.
- C. 요한복음 15 장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는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과 연결되시고 연합되시고 합병되신 것이다—14:20.
 - 1.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께서는 서로 제자들과 상호내재하시는데, 이것은 삼일 하나님과 제자들이 하나 안으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었기 때문이다—15:4-5.
 - 2.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과 거듭난 믿는 이들과의 이 확대된, 우주적인, 신성하고 인간적인 합병체이다.
- D.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번성, 복사판, 확산, 확대이다—4-5, 16 절.
 - 1.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시고, 우리는 그분의 가지들이다.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가지들로서, 그분과 유기적으로 하나이다—고전 6:17.
 - 2. 우리는 신성한 포도나무의 가지들,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의 일부이므로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다—요일 5:11-12.
 - 3.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분이 우리 안으로 가지 받으셨고, 우리는 그분 안에서 가지들이 되었으며,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—요 3:15, 11:25, 14:6, 골 3:4.
 - 4. 포도나무는 가지들에게 모든 것이다. 포도나무로부터, 그리고 포도나무를 통해 우리는 가지들로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다—요 15:4.
 - 5.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가지들을 통해 모든 것을 하신다.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고, 우리가 없으면 그분도 아무 것도 하실 수 없다—5 절.
- E. 포도나무의 가지들로서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 생활함으로 포도나무 안에 거해야 한다—4-5 절, 고전 6:17.
 - 1.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연결의 문제이고,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교통의 문제이다—1:9, 30.
 - 2.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라는 분명한 이상을 보는 데 달려 있다—요 15:2.
- F. 실재의 영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아들에 관해 증언하시고, 가지들인 믿는 이들을 통해 이 증거는 온 세상에 밝혀질 것이다—18-27 절.